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0년도 표어 ☉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 2.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 발행인: 이 중 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에베소서 강해

빛의 자녀들 I

(에베소서 5:1-17)

Children of light I

(Ephesians 5:1-17)

어둠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빛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빛의 자녀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중생은 도덕적인 선행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도덕적으로 점점 성화되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Those who belong to the darkness can become children of light through Jesus Christ, who is the light of the world. Children of light must play a role in shining the light into the darkness of the world. Just as darkness cannot mix with light, the people in this world are entirely separated from morally good deeds. They cannot be consecrated or holy first, but must first become completely new persons.

1. 하나님을 본받는 자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피조물 된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이 요구는 인간들이 이 땅 위에서 엄청난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살아야 할 것과 우리가 가져야 할 궁극적이고 이상적인 목표를 보여준 위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독특한 품성, 곧 영원성, 절대성, 전지성, 전능성, 유일성, 거룩성, 무소부재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속성, 곧 공의, 의분, 지혜, 진실하심, 선하심, 긍휼하심, 동정심, 사랑 등의 성품이 있는데 바로 이런 성품들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 ① 용서하는 사랑 -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우리가 용서하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② 주는 사랑 -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주지 않는 사랑은 거짓이며 위선입니다.
- ③ 산 사랑 - 산 사랑은 실제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적극적으로 봉사합니다.
- ④ 영원한 사랑 - 인간의 사랑은 변하기 쉽습니다. 믿을 수 없고,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도 그와 같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2. 거듭난 자

거듭난 자란 옛사람이 적당히 깨져 되어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는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 ① 바른 언어생활 - 하나님의 자녀는 누추한 말을 버리고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 ② 바른 도덕적 생활 - 본문 3-7절에는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성적 부도덕, 더러움, 누추한 행동, 탐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어 새 삶을 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 An imitator of God

The Apostle Paul said in verse 1, "Be imitators of God." How can creatures created by God imitate God? This imperative means that human beings must live their lives with a sense of great responsibility in the world. The greatest word shows us the ultimate and ideal goal we must have in

life.

As we consider God's character, we first recognize the qualities that God only has. For example, God has qualities such as etemality, omniscience, omnipotence, uniqueness, holiness, and omnipresence. On the other hand, there are characteristics that we share with God, such as justice, righteous indignation, wisdom, truth, goodness, righteousness, sympathy, love, etc. Therefore, we must imitate these characteristics.

The Apostle Paul taught that we should learn God's love, and love others in response.

- (1) The love of forgiveness - The fundamental method of imitating God is that we must love other by forgiving them. We must recognize that we are sinners forgiven by God. Therefore, it is no wonder that we must love others by forgiving them.
- (2) The love of giving - Love is something that we give to others. The love that does not give is a false love and a hypocrisy.
- (3) A living love - A love that is living refers to a practical and active love. Whoever is full of love will positively love, forgive, and serve others.
- (4) An etemal love - A human being's love is apt to change. Their love cannot be trusted. It is weak and easily broken. Nevertheless, we must do our best to imitate it, because God's love is etemal.

2. A person born again

A person that is born again means that he can properly be categorized as an old person incapable of becoming better, but whose inner life has been completely made new. Moreover, a person who has been born again will live a life that matches his new life.

- (1) The life of right language - God's children do not use obscene words, but words of thanksgiving. Therefore, we must set a good example for our neighbors by speaking to them in a way that helps them.
- (2) The life of right morals - Verses 3-7 describe the life of the old self that we need to throw away. The things that we need to throw away are sexual immorality, impurity, and greed.

My beloved Christians!

In these obscene and evil times, as we throw away our old self, and become the new self, living the new life, I sincerely pray that you and I will please God and shine the light all over the worl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케이بل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워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워싱방송) 제3채널(북종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말씀과 기도, 전도의 2010 사명자대회

11월1일(월) - 27일(토) 새벽 5시: 특별새벽기도회

이종운 목사 -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강해

2010 사명자 대회가 은혜 중에 계속되고 있다. 24시간 연속기도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맑은 시간을 책임 있게 감당하고 있으며 특히 항존직 직분자들은 참여하기 어려운 새벽 시간대를 맡아 기도의 불길을 이어나가고 있다. 10월29일(금) 오후7시까지 1308명이 릴레이 성경읽기에 참여하였고, 성경6독 통독 중에 있다. 정해진 시간에 한 마음 한뜻으로 공동기도제목과 개인기도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열열이 기도(다니엘 기도), 70인

전도대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전도, 대회 기간 동안 전교인이 1명씩 전도하는 대신자 작정으로 2010 사명자 대회는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또한 11월1일(월)부터 시작되는 특별새벽기도회에서 이종운 목사는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강해한다. 주일을 제외한 27일(토)까지 24일간 계속되는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서울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일 자	주력교구	일 자	주력교구	일 자	주력교구	일 자	주력교구
11월 1일(월)	1, 2	11월 8일(월)	1, 2	11월 15일(월)	1, 2	11월 22일(월)	1, 2
11월 2일(화)	3, 4	11월 9일(화)	3, 4	11월 16일(화)	3, 4	11월 23일(화)	3, 4
11월 3일(수)	5, 6, 7, 8	11월 10일(수)	5, 6, 7, 8	11월 17일(수)	5, 6, 7, 8	11월 24일(수)	5, 6, 7, 8
11월 4일(목)	9, 10, 11, 12	11월 11일(목)	9, 10, 11, 12	11월 18일(목)	9, 10, 11, 12	11월 25일(목)	9, 10, 11, 12
11월 5일(금)	13, 14	11월 12일(금)	13, 14	11월 19일(금)	13, 14	11월 26일(금)	13, 14
11월 6일(토)	15, 16	11월 13일(토)	15, 16	11월 20일(토)	15, 16	11월 27일(토)	15, 16

북한인권 기도대성회

11월 3일(수)~4일(목) / 신일교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인권 위원회가 주최하는 G20정상회의 기념 "북한인권 기도대성회"가 신일교회(신당 4동)에서 열린다. 2010년 11월 3일(수)~4일(목) 양일간 열리는 이번 기도대성회는 북한실상 세미나를 통하여 북한의 인권 상황을 바로 알고 이를 위해 뜨거운 기도를 하면서 북한동포의 인권회복을 위하여 인권법 제정 촉구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종운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는 3일 개회예배 설교를 한다.



제4회 사랑부 『천사들의 음악회』

11월14일(주) 오후2시 - 101호

우리교회 사랑부(부장 이계홍 집사)는 사명자대회 기간중 지체가 부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드리며 전도의 장으로 열리는 '사랑부 천사들의 음악회'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호산나대학 재학생

장애인생활체육역도대회 메달 획득

지난 10월 17일 강남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제2회 2010 서울특별시 장애인생활체육역도대회에서 총 5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노인케어학과 3학년 권민재(60kg 이하)와 같은 과 2학년 심희보(60kg 이상)는 금메달을, 노인케어학과 4학년 심서현(60kg 이하)과 사무자동학과 3학년 최지훈(60kg 이상)은 은메달을, 그리고 교양학부 1학년 이준구(60kg 이상)는 각각 동메달을 수상하였다.



2010 가을 화요정오음악회



이번주 화요정오음악회는 김주현선생이 담당한다. 김주현선생은 계명대학교 음악대학 교회음악과, 동 예술대학원 졸업,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독일 브레멘 국립예술대 고음악 석사 과정, 고음악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네덜란드 레이덴 콩쿨 고음악부문 1위, 독일 내 국제오르간 콩쿨 다수 수상,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계명대학교, 대구가톨릭음악원 출강 중이다.

만민에게 전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윤봉준 장로(9교구)

어부 출신인 무식한 베드로가 전도할 때 성령이 임하니 하루에 오천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전도는 목사나 전도훈련을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행4:4)

주님께서 이전전전 복음 전하라고 하신 그 명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전도 나가기 전에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 후 거리로 나가면 지나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한 장 한 장 순례자를 나누어 드리면서 받는 사람들이 꼭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행9:3-22)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전파에 매진했던 것(행9:1-22)을 떠올리며 주님 영접한 그날의 기쁨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노력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전1:17)

‘그러므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 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가족 우리 이웃 만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전도하여’ (단12:3)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전하려고 하면 힘이 많이 들 것 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넘치는 기쁨을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는 심정으로 다가선다면 전도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웃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터이니 우리 모두 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됩시다.

목사이종윤 · 박사 이종윤 - 목회자의 길 15

겸손 겸손 그리고 또 겸손을...

2년이 지나면서 200명 성도가 넘어서자 필라델피아에서 제일 큰 교회로 급성장한다. 성도들은 첫 사랑의 뜨거움을 갖고 새벽기도회, 주일찬양예배, 금요모임, 수요일회까지 열심을 다해 섬겼다. 세례받는 자의 수가 늘어가고 필라델피아에 영적 새바람을 일으켰다. 로간 한인촌은 마침내 필라델피아 한인회를 탄생시켰고 필라델피아 제일장로교회는 필라 한인 목사연합회를 출범시킨다.

이종윤의 모친 박귀순 권찰은 이종윤이 박사학위 논문 통과 소식을 듣고 그동안의 수고의 열매를 보는 듯 기뻐했다. 뉴욕에 있는 (재)한국 문화원 주최 장한 어머니에 추천되어 수상하시고 감사했다. 제일장로교회 설립 공



목사인수 받고 첫축도 ■ 이는 이종윤 목사

로자라도 존경을 받았다. 교회 설립 전단을 아이들과 손잡고 다니시면서 super market이나 거리에서 전도와 전단을 뿌리며 교회가 설립되니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복받으시라고 하시며 해가 진 밤에까지 전도지를 살포했다. 이종윤의 학위논문은 Internal Examiner(교내시험관) 3명과 External Examiner(교외시험관) 1명 전원이 A를 줄 경우 Oral Examine(구두시험)이 면제되는 학사 규정에 따라 특별 구두 시험없이 통과되었다. M. Black교수가 세계신약학회(SNTS)회장을 역임했고 Monography단행본 Editor로 출판권을 권하되 논문 분량이 너무 커서 학위논문 출판을 위해 500page정도로 줄이면 좋겠다고 했다. 영국에서의 학위 수여식에 참여키 위해 온가족이 함께 가기로 하였으나 어머니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자녀들(두딸과 한아들) 집에 방문하고 한국에 가고 싶다 하셔서 원하시는대로 보내드렸으나 학위를 받고 돌아와 보니 캘리포니아에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한다. 급히 동부로 모셔오게 했다. 이종윤의 아내 홍순복이 실험실에서 Supervisor로 일하는 하네만 병원에 입원시켜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였다.

주일찬양예배 직전에 이종윤은 병원을 찾아가 어머니를 문병할 때 아무래도 숨소리가 가빠지는 것을 알고 두 손을 붙잡고 문병은 성도들과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천국소망을 확인하는 임종기도를 드릴 때 들릴 듯 말듯 어머니는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마지막 아멘으로 기도를 그칠 때 숨을 내쉬면서 저 천국으로 고요히 평안한 모습으로 가셨다. 필라델피아 모든 교회 목사들이 관을 들고 복된 죽음을 죽으신 어머니를 Rose Hill Cemetary에 묻고 장한 어머니 상패와 사진이 찍힌 비석을 세워 드리고 필라델피아를 방문할 때마다 비석을 쓰다듬으면서 어머니를 그리워한다. 아버지는 충남 아산군 음봉면 쌍룡리 선영에 묻혀있다. 1996년 10월 5일이 충청남도가 개도한지 100주년이다. 그때 100주년을 기해 자랑스런 충남인 100인중에 이종윤이 선정되어 작은 상패를 받았다. 이제 이종윤의 고향은 아버지가 묻혀있는 충청도와 어머니가 계신 펜실바니아 필라델피아다.

학위를 받은 이종윤은 그의 별명대로 박사가 되었으나 아직 목사가 되지 못했다. 제일장로교회를 섬기려니 목사안수가 급하게 되었다. 세례식, 성찬식, 결혼식, 장례식 모두가

목사의 몫이지 박사로만 안된다. 미주 한인총회들이 교단마다 생겨나고 있는 때라 제가끔 이종윤 영입작전이 벌어졌다. 이종윤은 로마에서는 로마인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한인총회보다는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 선 RPCES(Reformed Presbyterian Church, Evangelical Synod) 필라노회에 목사 안수청원서를 냈다. 목사 고시가 엄격했다. 필기시험 중 히브리어는 신학교 성적이 A를 받은 자는 시험면제 받는 제도에 따라 면제 받았으나 헬라어와 다른과목들 그리고 노회원 전체 앞에서 면접이 까다로웠다.

고시위원 중 헬라어 시험관은 이종윤의 신학교 동기생이었다. 자네가 신약박사인데 그러나 시험은 시험이라고 했다. 전체 노회원 앞에선 이종윤은 의외의 질문에 당황했다. 어느 분이 질문하기를 건전한 신앙고백을 하고 세례 받기를 원한다. 헌데 그는 적당히 음주를 한다. 네가 목사가 되었을 경우 그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다. 이종윤은 쉽게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즉시 성경적 근거를 대라 한다. 논쟁 아닌 논쟁이 붙었다. 노회장은 밖에 나가서 기다리라 한다. 한동안 논쟁후 다시 들어오라 하더니 같은 질문을 해서 똑같이 대답하면서 한국교회가 술, 담배, 놀음, 축첩을 금한 것은 사회가 그것들 때문에 파멸되고 복음전도에 해롭기 때문이었음을 상기 시키고 나는 한국 유학생으로 필요에 따라 미국에서 안수를 받기를 원하나 나의 일터는 한국이다. 여기서 yes하고 저기서 no라 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다시 나가 있으라하여 다시 얼마 후 들어오라 한다. 이번엔 노회장이 E. J. Young박사의 아들되는 젊은 Young박사가 쓴 Separated Life라는 책을 주면서 이 책을 읽고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성경과 매치되는 것인지 일치한 것인지를 일주일내에 노회장에게 보고하라는 것이다. 이종윤은 150page되는 작은 책을 그날밤 10시가 되기 전 읽고 즉시 노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교회의 회원권과 성경과 일치된 입장이라는 대답을 했다. 노회장은 더 이상 다른 말 하지 말라 하고 안수 받게 된다고 통보해 준다.

이종윤은 박사학위는 대학의 총장이 주지만 목사는 사도권의 전승인고로 아무에게나 안수 받을수가 없다고 생각하여 노회장을 찾아가 RPCES필라델피아 노회가 안수식을 주관하되 내가 원하는 분들로 하여금 안수위원으로 청빙하고 싶으니 허락해 달라 했다. 노회장은 웨스트민스터 10년 선배로서 그렇게 하라 하신다. 이종윤은 1976년 11월28일 추수감사주일에 Holy Trinity Bethlehem Presbyterian Church(PCUSA)에서 박윤선목사가 설교를, 기도를 이상근목사가, 축도를 이인제 목사께 맡기고 목사안수를 받고 돌아서서 제일교회 지창욱집사를 장로로 안수하고 목사안수 후 첫 축도를 했다. 안수받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종윤목사 이리 좀 앉게, 나는 목사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네. 모든 면에서 반듯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조금 교만하게 보이는 것이 흠일세." 어머니의 조심스런 그리고 진정 사랑하는 아들 목사에게 주시는 첫 번 그리고 마지막 훈계였다. 이종윤은 그때부터 겸손 겸손 그리고 또 겸손을 외치면서 일생을 살기로 했다. (다음 호 계속)

시명자의 기도



초대

무덤처럼 칙칙같이 어둠던 어느 가을날
넘어지고 쓰러져있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피를 쏟아
새 만찬 상을 준비하시고
“어서 오라고” 초창하시느 주님

사선을 넘고 넘어 오신 당신
그 밤에 흘린 우리들의 눈물의 물결은
흐르고 흘러 생명의 텃밭을 이루고
고아 같은 우리를 사망자로 불러주시어
벌써 스무 살이 된 사망자들

교회위해 한시도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전도하지 않으면 밥을 굶던 우리들
비록 가난한 셋방이었지만
우리를 가슴 가득 안고
행복해 하셨던 당신

도란도란 모여 앉아
목회자세미나의 감람을 맡며
동그란 작은 공동체 속에
무서운 비전은
한국 교회를 넘어 세계교회를 섬기는
충성된 서울교회

사랑하는 양떼들을
어떻게 하면 잘 먹일까
이십년 동안 밤낮 노심초사하시며
당신의 뺨속까지 우려낸 피가
우리 가슴에 사망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 이종윤 목사님!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도다”
이십년 세월 속에 그 사랑 그 은혜가
물이 바다 넘칠 같이
오늘도 양떼들은 울고 옵니다

첫 사랑의 눈물이 마르지않도록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용기와 열정으로
다시 한번 사망의 햇불을
높이 들게 하소서
서울교회 성도들이여!

원복순 권사

만민에게 전도 - 선교사로 부름받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종길선교사, 홍미영선교사
(말레이시아 파송 예정)

말레이시아 깊은 정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청년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예수님 믿는 것을 기다릴 수 없어요."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마을에 처음 갔고 그를 처음 만났는데, 그는 지금까지 일생을 예수님 믿기 위해 기다려 왔고, 이제 복음을 들은 이상 예수님 믿는 것을 더 이상 지체할 수도 참을 수도 없다는 격렬한 그의 반응이, 내가 그곳에서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계 전역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싶고 믿고 싶으나 전해주는 이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택하신 백성이 많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듣지 못하고 어떻게 믿으며, 전해주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발걸음이 아름답고도 아름답기 원합니다. 오직 구원의 좋은 소식을 듣고 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서울교회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아름답고도 아름답기 원합니다. 오직 한 줄기 기도가 어둠과 죽음의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지휘: 서희숙권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시편145편(이현철곡)', '주의 옷자락(임금수곡)', '산으로 올라가세(Noble Cain곡)'의 세곡을 김윤지 선생의 오르간 반주와 홍혜란선생의 피아노 반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는 한 줄기 빛이 되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서울교회의 파송을 받아 말레이시아로 가게 됨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16:15)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는 자나 보내는 이가 다 한 몸을 이루어 귀한 사명을 충직함으로 다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가 찬 경륜'(엡1:9)을 따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엡1:10)되게 하시려는 하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개월 동안의 만남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열정적인 도고기도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1월1일(월) 서울강남노회 목사회 2010기울모임에서 "나의 목회철학"이라는 제하의 특강을 한다. 3월(수) 북한인권 기도대성회 개최에배 설교를 한다.
- 개업: 김준목 성도 나현주 성도(9교구) "커피미학" 종로구 소격동 66번지 (010-4156-3961) 이영주 집사 11교구 레이크 피아노, 잠실3동 레이크 팰리스상가 4층(02-422-1052)
- 이사: 유태서 집사(5교구)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211-1 약수맨션 A-904 (010-6385-8485)
- 주간식당봉사: 모세선교회(10.31) 이삭선교회(11.7)
- 금주의 식사 : 교회제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나의 하나님

애양원을 다녀와서

최인영(청년부)

출애굽기 성경공부반이 정수길목사님을 모시고 여수에 있는 애양원을 다녀왔다. 애양원은 산돌손양원 목사님의 순교기념지가 있는 곳이다.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애양원에서 그들의 더럽고 끔찍한 피고름을 빨아내시며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제의 악정과 우상숭배 강요를 신랄하게 비난하고 거부하여 6년간 감옥에서 온갖 핍박과 고문을 받고 1945년 해방되던 해에 자유의 몸이 되셨다.



이시다.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이 된 안재선의 아들이 목사님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이 또 한번 증거된 것 아닐까! 순교기념관을 돌아보며 60여 년 전 손양원 목사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까지 전달되어왔다. 애양원역사박물관은 현재의 현대식 병원으로 옮기기 전까지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했던 병원시설이었다. 전기와 수도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던 곳에서 원장님들의 사랑의 힘이 더해져 나병환자들을 치료했던 예전의 치료기구며, 시설 그리고 실제 사진들을 볼 수 있었는데, 한센병 환자들의 끔찍한 사진만으로도 사뭇 다가가기 힘든데 아픈 부위를 쓰다듬고 상처난 곳을 손수 치료 해주시던 분들이 정말 존경스러워졌다.

손양원 목사님은 1950년 공산당원들에게 체포되어 감옥에서 온갖 수모와 고문을 당하던 순간까지도 당신에게 총을 쏜 공산당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몸이 고통받던 순간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 다시금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실천해보고자 한다.

애양원으로 돌아와 다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시던 중, 1948년 여수 순천 반란사건 때 공산당 급우에게 두 아들 동인, 동신 형제가 총살당했으나, 끔찍한 아들의 살해자인 안재선을 위한 구명운동을 벌이시고 마침내 그를 석방시켜서 양자로 삼으셨다.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내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안재선은 죽으면 지옥 갈텐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라고 말씀하신 손양원 목사님은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5:43 ~ 44)'는 성경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신 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 우리가정 되게 하소서
2.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3. 2010 사명자 대회 특별새벽기도 위하여
4. 국가의 평안과 복음화된 통일조국 실현위하여

교회외시는 길

